

34.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요한복음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저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복음은 4면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4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그릇으로 표현했느냐 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한 한편으로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세 가지

기치를 내 걸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면 첫째, 오직 은혜 즉, 우리 신앙은 오직 은혜이어야 한다. 둘째, 우리 신앙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셋째, 우리 신앙은 받침에 해당하는 오직 성경 즉,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기치를 내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가톨릭이 세계를 다스리시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 세 가지를 강조한 것이 그 상황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을 보다 더 충분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모든 것이 말씀에 토대해야지요. 은혜에 의한 삶이건, 믿음에 의한 삶이건, 십자가에 의한 삶이건,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믿음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은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에 의한 삶에 포함시켜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 되어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에서 한 중요한 부분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직 성령에 의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말씀, 말씀”

“말씀, 말씀”에 왜 따옴표를 붙여 놓았냐 하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기초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 말씀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릇되게 강조함으로써 성령의 자리를 제외해 버린 그러한 경우가 오늘날 없지 않기 때문에 따옴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나 하면은 성령에 의한 삶의 첫 시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많이 강조한 나머지 당연히 말씀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자리를 제외해 버린 말씀을 그릇되게 강조한 그러한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인데 이것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과 같이 가는데 이러한 그릇된 이해로 인하여 성령의 자리가 없어지거나 수축됨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고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바로

살펴보아야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강조를 하더라도 올바른 의미에서 강조하게 되고 또한 말씀과 성령의 올바른 균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올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흔히 강조하는 당연히 말씀은 강조 되어야 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잘못 강조하는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 셋째,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틀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둘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잘 연구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틀리다는 것이냐 다 맞는데 그럼 뭐가 틀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맞는데도 그러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에 대한 그릇된 강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그릇된 이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말씀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데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만큼 말씀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강조 되어야 되죠. 아무리 강조해도 말씀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 왜 말씀의 그릇된 강조라고 말하느냐 하면 말씀은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옳지만 말씀에 대해서 그릇되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릇된 강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릇되게 강조하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은 우리의 신앙이나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은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은 소홀히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강조하여, 올바르게 말씀을 강조한다면 당연히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할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토대에서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이 되도록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텐데, 말씀을 강조하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의 중요성은 소홀히 하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는 드롭니다.

사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킬 것이고, 어떻게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을 것인가 하는 때로는 전혀 성경에 맞지 않는 때로는 세상 사람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들까지 동원해서 사역을 목표를 이루어 가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으면서도 말씀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역

과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은 소홀히 한 채,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이렇게 그릇되게 강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우리 신앙을 성경과 말씀의 조화를 이룬 올바른 각도에서 이해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제 살펴 보면 나옵시다만 마치 바리새인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론을 강조하는 특별히 교리를 위한 이론을 강조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죠.

또 하나, 말씀을 잘못 강조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는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말씀을 강조하되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만 강조하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게 그릇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그릇된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강조하는 경우가 그릇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말씀을 강조하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서고자 하는 자세로 강조한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뭐 안하고, 뭐 안하고, 뭐 안하고, 뭐 하고, 뭐하고, 뭐한 것이라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말씀 말씀은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하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를 강조할 따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을 한 번 보시죠.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읽으면, 아 저들은 말씀을 강조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이렇게 읽으시지요.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똑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너희에게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 구절을 인용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가복음 7장6-7절, 혹은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에 보시면.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그러면 이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 그들이 신앙생활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철저하게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말씀을 제일 많이 강조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토대로 산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사야 시대에도 그들이 전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저들이 얼마나 많이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절기를 지켰는가를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중요시 여겼을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적용하심으로써 너희가 이랬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에 이들이 말씀을 전혀 안 강조한, 안 읽은 말씀을 나름대로 지키거나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강조하고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뿐이라 그렇게 말했겠어요. 왜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씀을 강조하되 그릇되게 강조하면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전통을 강조하는 것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치지 않게 하리도다 하였느니라.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마귀가 지금 뭘 인용하죠. 기록하였으되 그리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맞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을 인용하죠.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11절과 12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서요 그 시편 91편 11-12절을 읽어 보시면 이러한 차이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1-12절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품이 우리가 사는 그러한 거처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서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인데, 이 성경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네 모든 길에’ 라는 빼놓고 나머지만 인용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 놓고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들이 그 발을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말씀하신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 삼고 살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심지어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지키시겠다 그 말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일부를 빼고 때론 일부를 더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그 말씀을 갖다 붙이니깐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예수님 뛰어 내리면 천사가 붙들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적하잖아요. 아멘?

자, 이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되 하나님의 의도하시고, 의미하신 바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를 빼거나 더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 그러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28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식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안식을 얻는 비결이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는 거죠.

멍에를 멘다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는 멍에를 결의를 땀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결의라는 말은 여기에 암소 하나에다가 송아지를 두개로 묶어 놓으면, 송아지가 처음에는 천방지축 뛰다가 결국은 암소가 원하는 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멍에를 메어 놓으면.

그래서 암소가 행하는 대로 따라감으로 이것이 송아지를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실재적인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 자신, 내 가정, 내 소유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진정한 실재적인 주권이 이루어지는 주님이 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재로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주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면, 그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때 우리가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교회에 이런 큰 플래카드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안식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강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그것의 비결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부분에서부터 실재로 주가 되시는 삶을 삶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그러한 삶 가운데 거할 때, 그 때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믿어서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신, 자기의 미래,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표가 다 포기되어지고, 주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지기 원한다!

좀 그렇거든요.

다 자기 가족의 안녕과 축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남편이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미움이라고 말할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고…….

더 나아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건데, 자기 모든 소유권이, 돈의 소유권이, 자기 집이던지, 땅이던지, 예금통장이라던 지, 보험이라던 지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드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러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그게 주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전하면 성도들이 ‘이 교회 밖에 없나?’ 그러고 안 오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강조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주께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지만, 실제로 이 삶의 비결인 그 다음 절을 강조하지 않으면, 같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는 편에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러한 의도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은 수단에 불과한 것’ 으로 이 말씀이 전반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이 말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전혀 말씀을 강조 안 한 겁니다.

이건 사단도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사단이 하는 것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해 말씀을 더하고 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하게 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와는 전혀 다른, 다른 말이 되면 이것은 전혀 말씀에 선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강조해도 그것은 말씀에 선 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말씀에 선 게 아닙니다.

심지어 사단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실제로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있냐고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 그 분 자신의 성품이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옳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오전 11시 시간에 ‘순종하는 삶’ 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11시가 아니라 9시 시간에, 우리 1부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의 순종은 부담됩니다.

‘하나님, 그냥 교회 나와서 십일조 좀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드러져서 실질적으로 주님께 배워야 한다.’ 되게 부담스럽죠.

어떻게 그 소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서 주님 원하는 대로 모든 소유를 다 쓰냐고요. 집, 통장, 땅 다 할 것 없이. 그건 좀 너무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순종하라고 그러시느냐?

그게 우리의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최선이이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으며,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아시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로써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예화가 나오는데 그 분이 직접 목회하면서 보았던 일이거든요.

성도 중에 캐나다에서 아이 하나가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예배 와서도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집에서도 안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때려서라도 자식의 옳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모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그냥 '아이~ 잘했다' 그러고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심방을 갔는데, 그 집에 심방을 갔는데, 아이가 차 있는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놀래가지고 막 오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항상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실제로 차에 치어 죽었어요.

순종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거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지기에 가볍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잖아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주님의 명에를 안 메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두 마리에 한 다리씩 걸치고 이 두 마리를 요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정반대로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적당히 유리할 대로 세상이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 발을 뺐었다가 하나님 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세상에서 발을 뺐었다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아~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대개 어렵죠. 그건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두 마리의 말에 정반대로 달리는 어둠과 빛이 다른 만큼 정반대로 달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 가치관도 완전히 100%다른데 둘 다. 다른데 살려고 하니까 이걸 곡예도 그런 곡예가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코 깨지고 날마다 엎어지고 날마다 깨져서 힘들다 그러죠. 힘들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데요. 왜요? 언제 가벼운가? 주님의 말에 타야죠. 주님의 명에 가운데 들어가야죠. 주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쉽죠. 그리고 그게 생명의 길이죠. 생명의 길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는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가진 직업 저하고 바꾸자 그래도 저는 안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는 모르지만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저보고 누가 이 나라 대통령되라 그래도 저는 안합니다. 하라는 사람도 없겠죠. 압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는 모르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모든 주식을 제에게 물려주면 저더러 거기 있으라 그래도 저는 안합니다. 그분도 안하시겠지만 저도 안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선이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최근에 포도나무교회 성도 가운데도 한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지요. 너무너무 힘들죠. 한 편으론 참 안됐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대가를 치르며 배우는 거죠.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내다볼 때 우리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예를 들면 IMF전에 누가 그 뒤에 IMF가 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전에 나름대로 사업의 확장을 꾀하고 때로는 넓은 토지를 사고 이것을 팔아서 많은 돈을 남기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순식간에 IMF닥쳤을 때 많은 회사들이 부도났습니다. 그러니 IMF시대만이 아닙니다. 최근의 어떤 한 성도만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계획을 세웠는데 세상일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우리는 내일이 뭐예요. 5분후에 일어날 일도 뭘지 모르는데 그런데 계획한 의도대로 되지 않으니 너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게 아님을 말씀하셨는데도 자기의 계획을 따라 했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지게 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에 우리에게 최선이며 우리의 가장 옳고 우리에게 명령한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죠. 좀 얘기가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나 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씀, 말씀, 말씀 강조해도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 전통을 강조하는 것을 말씀으로 강조하는 거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그들이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신바 그대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적용시켰는데 사단은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내세우되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더하고 빼서 왜곡시켜서 그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르게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밀알선교예수그리스도 교회인가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다 성경을 인용합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에게 맞도록 성경을 더하고 빼서 왜곡되게 맞췄기 때문에 이단인거죠 그게 그런데 그런거만 이단이 아니라 우리가 보수적으로 잘 믿는다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예를 든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취하면 원래 성경이 말씀하신 그 의미와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이 왜곡되게 적용되어지는 건데 이것 또한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지극히 보수정통일지는 몰라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는 이단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적합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 지는 모르지만 너희 속에 세상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것과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이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이요, 우상숭배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했으며 그러되 그들은 왜? 무슨 말씀을 강조했느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말씀의 몇 가지를 누구보다 강조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고 사람의 유전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말씀, 말씀 강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리를 위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은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별적으로 취하고 하나님 말씀이 의도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바가 없으며 그러면서도 말씀을 강조하되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고 이사야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듯이 사실을 따지고 보면 사람의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리 몇 가지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사실 옳게 강조해야 되는데 말씀 말씀을 많이 강조하면서 성령의 자리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린 그 아주 잘못된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잘못 강조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말씀을 잘못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교리를 위한 말씀만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되 실제로 따지고 보면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그릇된 말씀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거지요. 누구보다 말씀은 강조하는데 누구보다 말씀은 강조하는데

이승준 목사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표현도 재밌어요. “말씀” 이렇게 “말씀, 말씀” 많이 강조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교수님들이 새벽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냐? 우스개 소리하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보다 5분 더 많이 해야 한다. 왜냐하면 먼저 나가면 말이 나잖아요. 우리는 목사가 성도보다 기도 적게 한다. 뭐 비가 왔는데 권사님은 새벽기도 나왔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오오면 “어이구! 목사님이 새벽기도 비 온다고 빠졌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내다본다잖아요. 갔나? 그러면 어떨 때는 권사님도 목사님이 안 끝나고 가나? 쳐다보다가 눈이 부딪친다잖아요. 우스운 얘기죠. 말씀은 많이 강조하지만 이건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를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나?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옳아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담고 있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전제돼야죠. 그게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신앙이나? 거기 성령이 같이 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 얻는 거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구원 얻는 거

우선 성경 보십시오. 요한복음3:5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첫번째 나는 것이고, 이제 영으로 두번째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고후 4장에 나오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취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서 빛이 비취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취셨느니라” 여러분, 구원 받는게요 구원의 교리를 배워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얻으면 구원 얻는다, 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밝히셔서 저들이 성령의 조명으로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칠 수 있지만 이 구원의 교리가 말하는 살아계신, 저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잘하였도다 내가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마치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아서 그것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교리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교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한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알게 한 이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교리교육을 통해서 구원받는게 아니라, 교리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너무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단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모든 기적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왜? 바리새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게 포함되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는게 포함됩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런데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에게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는 진실로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텐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게 될텐데...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이 비어지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하게 될텐데...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진실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진대, 그 예수님을 볼진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진실로 감사하며 감격할텐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많은 핍박 가운데서 저들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했거든요. 왜요?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사역이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주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번 말씀드린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자기들이 계획해서 하나님께 섬긴 사람 없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은 하나

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든 모세든 이삭이든 누구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그들이 자기의 전존재로 주님의
 행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했을 때 주님이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셨죠. 이게 사역입니다. 그런
 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거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는 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
 리의 삶에 토대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를 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습시다.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 있었는데, 모세오경 어디에도 요단강을 어
 떻게 건너갈 것인지, 모세오경 어디에도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
 뜨릴 것인지 안 나와 있었습시다.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되, 일점일획도 틀림없이 그 토대 위에서
 살되, 그 말씀 그대로 적용하는 삶을 살되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했을 때 요단
 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중에 아이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역은
 철저하게 말씀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비취심을 따라 하나님의 행하심
 에 따라 순종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구원이 성령으로 가능하
 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으로 가능하죠. 사역이 성령으로 가능하죠. 성화요? 우
 리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화’ 를 우리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화는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우리가 우
 리 자신을 이길 것으로 압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이기
 기 위해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이겨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금식했고 그렇
 게 철저하게 예배드렸고 그렇게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성경은 전혀 달리 말하고 있습니
 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고후 3장 18절,
 어떻게 성화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성화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언제 변한다구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변하더라구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비취주셔야 돼
 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언젠가 한 번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쪽 오금동에서
 목회할 때 초기에 노인분들만 오시고(연세 드신 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했
 죠.) 봉사할 분이 오지 않아서 속으로 ‘왜 하나님은 이런 분들만 보내주시나’ 그렇게 생각했습니
 다. 너무 목사가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는 제가 새벽기도를 끝마치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케 하는것
 을 네가 감히 속되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 교만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
 게 목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뚜껑을 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
 어진 제 자신을 보게 하시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타락하고, 교만한 생각이 있었는가를 보이신 것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기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
 게 비추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그러한 부분들이 비추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승제 목사님이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분은 가정 사역까지 공부하신 분입니다.

대학 4년, 신대원 3년 공부하고 2년 동안은 가정사역을 공부하셨습니다. 신학교를 9년 공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또 그것을 잘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적용을 다하여 봤는데 부부간에 아직도 자꾸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목사님을 잘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는 몰랐는데 하루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딱 들쳐주시니까 보이는데 자기 생각속에 여태까지 자기 목회가 마누라 잘못 얻어서 되지 않은 것처럼 좀 똑똑한 마누라 얻었더라면 내 목회가 잘됐을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사이에 있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딱 비추시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던지 헌신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섬기기 원하는 그 아내를 그렇게 두고 생각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딱 비추시니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보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의 엄청난 교만, 엄청난 사람들의 우월감, 어떠한 사람에 대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자세, 탐심과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소식지 보셨어요? 김영신 목사님이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 분이 1차 집회 때 오셨습니다. 술천 수양관에서 할 때 오셨는데 옆에서 보니까 사역 시간인데 눈물 콧물을 쏟는데 왜 그렇게 쏟았냐면 자기 속에 그러한 죄들이 있음을 보이시는데 끈적 끈적한 그런 물질들처럼 이 속에 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가득 있어서 계속 울면서 꺼내고 꺼내고 또 꺼내도, 아직도 꺼내지 못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동기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지역에서 사랑이 넘친다고 소문이 난 목회자였습니다. 귀한 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귀한 분이십니다. 교회도 일찍 건물을 세워 나름대로 자기의 동기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비추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도 자가 나름대로 신실하게 해왔다고 생각을 해었는데 그런 동기나 가치관이나 자세나 어떠한 사람들을 대하였던 여러 가지 생각과 태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오염된 것임을 보이셔서 그토록 울고 울고 울고 꺼내는데도 다 꺼내어 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앞에 올 때마다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맨날 울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떤 때는 나오기도 싫었지만 올 때마다 그때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자신의 삶속에 그릇된 기준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그릇된 모습, 흉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할지를 모르지만 그 속에 탐심, 탐욕, 미움, 시기, 다툼, 악한생각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하신 것처럼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들춰져야 변합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1장부터 6장까지 선지자로서 줄기차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니까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자 가운데서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뵈었다” 고.

입술이 부정한 것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드러났으니까 그것은 대단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비하면.

성화요. 기도나 금식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기도나 금식은 어디에 필요 하느냐 주님을 아는데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주님의 의중을 알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기를 위해 그래서 때로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아는데 필수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와 금식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아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설 때에 우리가 육신을 이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가운데,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빛을 비추사 주님을 우리에게 보이사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돌이켜지고, 중심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성경에 나온 교리를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전혀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교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교리를 그대로 믿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실제로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여나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성령이 없이는 가능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성화, 영화, 믿음, 사역, 치유. 영적전쟁에서의 승리, 아무거나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에 의한 삶은 무엇이나?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아까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렸냐면 이제 성령이 선명히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말씀, 말씀은 강조하되 말씀을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그릇되게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자리를 소멸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대로 잘 적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자리는 소멸해 버림으로써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삶은 전혀 다뤄지지 않은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을 따라 신앙의 모양은 했으나 중심은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도 말씀은 그대로 교리적으로 믿는데 삶에서는 전혀 말씀이 삶을 위한 기둥이 되지 못하고, 그냥 선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대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 취할 뿐이고, 심지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의 개인 성도가 교회 가운데 세상의 불법이 그대로 난무하면서도 여전히 말씀,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교리는 그대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전혀 안 다루어 집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뤄지지 않고, 서로 시기하고 미운 것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교회내에서 서로 갈등과 반목 가운데 있어서 패가 갈라지는 것 전혀 다뤄지지 않고, 상대방 앞에 겸손히 섬기는 것이 전혀 다뤄지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숙이고 내게 와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숙이고 들어가 하면서 서로 반목과 갈등이 전혀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말씀은 다 강조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성령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곡되어버렸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나면 말씀,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기로 원하였던 것은 우리 신앙은 일부 사람들이 왜곡되게 강조한 것처럼 그저 말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당연히 강조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토대 위에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성경책 한권을 남겨주시면서 “너희가 잘 연구해서 그대로 살아라” 라고 승천하시지 않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다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른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말씀도 올바르게 강조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말씀이 단순히 교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는 올바른 의미에서의 말씀이 강조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이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을 강조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은 5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 말입니다.

교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강조하였지만 삶과 사역을 위해서는 강조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말씀이 안 거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왜곡해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듯이 자기가 원하는대로 선별적으로 취하지 실제로 말씀 앞에 삶이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처럼 한 예를 들면 그것은 전혀 말씀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곡되게 실제로는 말씀은 강조하기는 하지만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시대건, 그 시대건, “너희의 신앙생활은 인간의 전통에 따른 것 뿐이라” 고,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것이라” 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려면 여러분은 지금 충분히 이해 하셨을 것이된다. 오늘 설교한 내용으로는.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말씀에 토대한 성령께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한 부분은 성령에 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텐데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인식해서 말씀을 토대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실재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개인이건, 교회건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